

학부모 대상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 경기도 P 지역 일반고교 학교운영위원 중심으로 -

김용기*

본 연구는 경기도 P지역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결과를 P지역에 제공하여, P지역에 현재 보다 나은 진로교육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P지역을 연구주제로 삼은 이유는, 현재까지 고교입시 비평준화지역이고, 학부모에 대한 진로·진학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 P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10개교, 학부모위원 1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심층면접을 3회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국가평생교육원, 공공기관-시설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율은 20% 전후지만, 교육효과율 및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부모 진로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병행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모색도 필요하다. 셋째, 진로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수준별, 학교급별, 지역특색별로 다양성과 지속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로교사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주제어 : 진로교육 법령, 학부모 진로교육, 진로교사

논문투고일: 2022. 01. 18. 최종심사일: 2022. 03. 07. 게재확정일: 2022. 03. 13.

* 경기도 평택시청 창의체육교육센터장

Corresponding Author: Kim, YongKi. 3825 Sudongdaero, Pyung-Taek city, Kyungki-do, Korea.
17869. E-mail: nova365@naver.com

I. 서론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세계적으로 국가가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학교 교육이,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진로교육이 미래 교육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2009년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진로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책무성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진로교육은 급격히 확대되어 명실 공히 공교육의 교육목표로 까지 안착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는 정책과 기반 확대에 따른 진로교육 기반 구축과 자원투입에 따른 성과 검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만족도와 진로개발역량이 학교 급 중 가장 낮다고 보고된다(정은진, 2018). 또한, 학계에서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현장에서 생애 진로개발역량을 증진하려는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가 명문대 진학 요구와 부딪혀 여러 모순적인 지점이 있다고 밝혀왔다(박나실, 2017).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왜 이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학부모의 인식에서 찾고자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 시 진로교육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것 못지않게 학부모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등학생들도 부모를 통해 희망직업의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정은진,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부모들의 학교 진로교육이 어떠한 영향 또는 도움 주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이 진로 선택 시 학부모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전제하여,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생 진로선택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인한 직업 다변화는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P지역의 학교에서의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을 알아보고, P지역에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진로교육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부모대상 진로교육의 성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부모대상 진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 교육 법령 근거

진로지도 및 진로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표 1> 진로교육 법적 근거

관련법률	조	조문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학교교육)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학습자)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教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진로지도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학생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연수 등에 관한사항

		2. 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사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 정보 센터(2022)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중·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진로와 직업’교과를 신설하고 적용하였고, 2011년 진로 전담교사를 배치하였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진로전담교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2> 진로 진학 상담교사 배치 법적 근거

구분	교과목 교사(예: 국어)	교과목교사(예: 진로와 직업)로서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초중등교육법 19조, 시행령 35조 1항의 교사에 해당	좌동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21조 2항 별표2(정교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국어”표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21조 2항 별표2(정교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상담”표시 과목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로상담’으로 변경
교육과정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과부장관 결정 교육과정 총론: 기초교과영역 · 교육과정 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과부장관 결정 교육과정 총론: 생활·교양 교과영역 교육과정 각론
역할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중심의 “기초교과부”, “탐구교과부”를 두고 “국어” 교과지도 및 연구 활동 등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중심의 “진로지도부”를 두고 “진로와 직업” 교과지도 및 교과 외 (입학사정관제 관련 진로·진학상담포함) 활동 등 담당

출처: 교육부(2022) 및 박창언(2020)

2. 학부모 진로교육 개념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진로교육법 제 2조).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 제 1조 목적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진로정보는 개인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적용에 대한 지원을 하기위하여 교육적, 사회적, 심리학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구성된 결과물을 의미한다.

학부모의 진로교육은 학령기의 자녀에게 그 시기에 적절한 자녀의 진로에 대한 발달, 체험, 선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 태도 정보들을 말한다. 학부모 진로교육의 대상은 학령기의 자녀를 둔 학부모며, 더 나아가 교육의 목적은 자녀의 진로 정보제공, 선택, 발달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3.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는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교육에 대한 성과는 교육받은 주체가 목적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변화와 성장으로 증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진로교육은 <표 3>과 같이 대부분 투입-과정-성과라는 체계로 정리하여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 서유정(2013)은 진로교육 성과를 교육환경과 관련된 외재적 결과(output)와 내재적 결과(outcomes)로 구분하였다. 외재적 결과에는 학교의 실행 정도, 진로교육 운영실적 등 투입과 과정의 요소가 해당하고, 내재적 결과에는 학생들의 진로 인식변화와 향상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가 해당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에 따라 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실제 확산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성과평가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평가에서는 학생의 진로교육 정책 만족도가 지표로 활용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1.18.).

<표 3> 학교 진로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

구분	투입	과정	성과
의미	학교진로교육 자원, 환경 및 지원	학교 진로교육 활동 운영 및 참여	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성과 및 요구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진로교육 환경 및 여건 • 학교 진로교육 네트워크 • 관리자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내용 • 학생의 학교 내외 진로활동 참여 • 학부모의 학교 내외 진로활동 참여 • 담임교사 진로지도 내용 • 가정의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및 학교생활 만족도 • 학생의 진로의식 성숙 수준(학생 진로개발역량 등)

출처: 이영선(2020)

4.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정책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관련 정책은 교과부의 2010년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초·중등 진로교육 시행계획’에서는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지원하려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진로지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과 관련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정책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은 ‘2012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서부터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되었다. 대학 서열과 직업 귀천에 대한 사회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부모가 자녀의 진로선택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이영선, 2020). 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자녀 진로설계를 지원에 활용할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와 학부모가 본인의 직업 전문성과 진로지도 경험을 다른 학부모, 학생과 강의, 상담, 멘토링 등으로 나눌 수 있게 ‘학부모 진로코치’로 양성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교과부, 2013).

정부의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학교 진로교육의 투입, 과정, 성과

시기	정책문제	학부모의 진로지도 지침	학부모를 학교 진로교육에 활용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진로교육기능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 강화: 산업체와 협력하여 ‘일터탐방주간’, ‘부모님 회사 탐방의 날’ 운영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정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이해와 접근성 • 학교 진로교육 담당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학부모 진로상담 운영) • 진로코디네이터를 활용한 학부모진로교육 • ‘자녀를 위한 진로교육 매뉴얼’ 학교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공공기관, 시도교육청부터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부모 직장 탐방 기회 제공 • 학부모, 퇴직 교원 등 진로코디네이터 선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중심 진로교육 내실화 필요성 • 입학사정관제로 개편 이후 진학 준비를 위한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의존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 진학상담교사 배치(직무에 학부모 진로·진학연수, 상담 포함) • 진로교육 선도교육청 선정과 지원(‘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등 실시) • 학교 내 학부모 정책설명회, 상담 주간, 학부모회를 활용한 진로진학 자료 보급 • 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한 정보제공(홈페이지 개통) • 대교협과 EBS 공동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 EBS 진로교육 필요성 제고 방송 제작 • 자녀 진로교육 책자, DVD 등 자료 제작·보급 	-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진학, 직업 관련 진로 인식 개선 • 학부모, 기업인, 지역사회 인사를 학교 진로교육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학교가 주관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상시 운영 • 학교 학부모회 활동과 연계한 진로 교육 연수 • 학생 진로체험, 진로캠프에 학부모 공동 참여: 자녀 이해 및 직업 세계 이해 지원 • 학생·학부모 진로상담 우수 진로 교사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직장체험’ 형태로 직업 현장 개방 • ‘진로코치’ 양성: 학부모, 산업체 경력자, 지역 인사, 대학생, 동문 등 활용 • 학생 진로체험 및 진로 캠프 참여: 학부모의 직업, 직업관을 토대로 학생 대상 강의, 상담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진로교육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p>및 진로교육역량 강화 필요성</p>	<p>운영 확대(4000강좌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학부모 수요맞춤형 연수 운영 • 커리어넷 활성화: 진로교육 동영상, 진로소식지(드림레터) 제공 • 진로소식지 학교로 보급(주 1회, 학기 중) 	<p>확대(5만 명 양성 목표)</p>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진로인식개선 및 기존 학부모 진로교육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상담 확대: 학교 대면상담, 커리어넷 사이버상담 • 다양한 매체 활용 추진: 어플리케이션, 신문, SNS, 팟캐스트, 원격 연수과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진로교육 의견수렴 • 학교 진로체험지원인력 전산 관리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 학부모 진로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과 가정통신문으로 보급되는 진로소식지(드림레터), 진로정보앱(맘에쏙진로), 팟캐스트 방송(진로레시피) 등 매체 다양화 •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부모용 진로 정보 신설 • 북한 이탈 주민 학부모 대상 맞춤형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풀 확대 • 진로코치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보급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맞춤형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학생 대상 전문가 상담풀 운영 • ‘찾아가는 장애 학생 학부모 진로·직업 연수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기관 진로 체험처 제공 유도 (학부모 진로코치 등 봉사활동 시간인정)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맞춤형 학교진로교육 운영 기반진로교육 운영 기반확충 및 진로교육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용 진로정보 온·오프라인 콘텐츠 계속 보급 • 초등 진로교사와 담임교사 대상 연수(학부모 연수, 학부모 진로상담 전문성 강화) 	-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학부모, 교원구성원의 맞춤형지원을 통한 진로교육역량 강화와 진로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자율 진로교육사업 운영 지원(학부모, 학생, 교원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관련 사업) 	-

출처: 이영선(2020).

5.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고등학생의 진로선택과 개발은 부모와의 상호영향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관련 문헌을 <표 5>와 같이 연구 검색하였다. 김소라와 문승태(2017)는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수리·이재창(2007)은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학생의 진로 결정수준, 진로성숙 등 진로 관련된 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자기효능감을 높고, 역기능적(부정적) 진로사고를 낮추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지연(2013)은 부모의 진로에 대한 지지 유형을 정서, 평가, 정보, 물질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성숙과 정적 관계가 유의함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다른 변인을 통제하여, 정보가 진로성숙에 영향이 있고, 진로 결정의 자기효능감에는 평가와 정보가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유사한 연구 결과로는, 안미경과 유금란(2013)은 남, 여학생 모두에게 부모의 진로와 자율성이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비례관계라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남학생의 진로성숙에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유의하였고, 반면에, 여학생의 진로성숙은 부모의 진로지지만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 가 있었다.

또한, 김소라와 문승태(2017) 부모가 자녀와 진로와 관련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가 충분하다고 인지하였을 때, 그리고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을 부모가 알고 있을 때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개발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웅택과 최재혁(2017)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진로 관련하여 부모와의 대화, 부모의 양육 방식과 진로 정체성, 직업 결정 간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진로 관련 대화는 고등학생의 명확한 직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간접 효과도 있었다.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보다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가 고등학생의 직업 결정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현진(2019)은 진로에 관해 부모와의 대화가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진로성숙도를 높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김희수(2005)는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를 대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양육 태도 역시 고등학생의 진로 관련 변인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다. 류은수(2021)는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우동욱·김응자(2020)은 부모의 코칭역량이 자녀의 긍정적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아·도미향(2021)은 부모코칭이 자녀의 상호성장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표 5> 진로교육의 부모 영향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주요 연구결과
김소라·문승태(2017)	• 자녀가 응답한 부모와의 흥미와 적성 학교와 학과 결정에 관한 대화빈도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줌
김수리·이재창(2007)	•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학생의 진로 결정수준, 진로성숙 등 진로 관련된 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짐.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자기효능감을 높고, 역기능적(부정적) 진로사고를 낮추는 방향으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음.
이지연(2013)	•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부모지지 유형 중 정보지지의 정적인 영향이 유의함.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하여 부모의 정보지지와 평가지지의 정적인 영향이 유의함
안미경·유금란(2013)	• 남, 여학생 모두에게 부모의 진로와 자율성이 진로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비례관계라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음
이응택·최재혁(2017)	• 부 또는 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빈도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직접 효과와 진로정체감을 부분 매개하여 고등학생의 직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 방정식 경로가 유의함
장현진(2019)	• 부모와의 대화가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진로성숙도를 높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더 중요함
김희수(2005)	• 부모가 고등학생 자녀를 대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양육 태도 역시 고등학생의 진로 관련 변인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류은수(2021)	•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동욱·김응자(2020)	• 부모의 코칭역량이 자녀의 긍정적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민아·도미향(2021)	• 부모코칭이 자녀의 상호성장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함.

6.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및 정보제공

학부모대상 진로교육 및 정보제공은 교육부 및 직업능력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석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대상 진로교육

현재 진행되는 학부모 진로교육은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상담이다. 담임교사와의 진로상담과 진로담당교사와의 상담이다.

둘째, 학부모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진로 연수 및 특강 수강, 진로 코치 및 진로 아카데미 강사활동, 직장인 특강 및 멘토 활동, 학부모직장을 진로체험처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학부모 진로교육정보제공이다. 진로교육정보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드림레터’, ‘진로레시피’, ‘맘에 쏙 진로활동’이다.

2) 학부모 진로정보제공

현재 진행되는 학부모 진로교육정보제공은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드림레터는 2012년 교육부와 직능원이 가정통신문 및 앱 형태로 제공하며, 학교·학급별로 진로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진로레시피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다.

둘째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진로교육이다. 직업능력연구원 「커리어넷」,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의 「대학정보포털 어디가, 대학알리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프로칼리지」 등이 학부모 진로정보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시도광역시 단위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이다. 시도교육청, 진로 교육센터, 취업 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정보가 제공되며, 지자체별로 특화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경기도 P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업무 경험에서 나타난 심층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학부모 운영위원들에게 연구 목적, 연구내용을 알리고 협조요청을 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는 아래 <표6>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P 지역의 21개 고등학교에서 11개교 특성화고·종합고를 제외하고, 일반계 10개 고등학교, 학부모 위원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 6> 연구 참여자

번호	참여자	성별	경력	비고
1	참여자 A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2	참여자 B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3	참여자 C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4	참여자 D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5	참여자 E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6	참여자 F	여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7	참여자 G	남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8	참여자 H	남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9	참여자 I	남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10	참여자 J	남	학부모운영위원	일반고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학교의 학부모대상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이므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경기도 P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P지역이 고교입시 비평준화지역이므로, 학부모에 대한 진로·진학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이므로, P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학교의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이, 학부모가 자녀 진로교육설계 시 얼마나 도움 또는 효과를

주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선행) 연구 분석이다. 둘째, 홈페이지 자료 분석이다. 셋째, 교육부와 직업능력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분석이다.



[그림 1] 연구 절차도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분석과 델파이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분석은 교육부의 진로교사 법적 근거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을 분석 정리하였다. 그리고 델파이기법 및 심층면접을 구체화하여 실시하였다. 2021년 9월-11월까지 총 3회 심층 면접을 하였다. 1차는 델파이기법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3차는 심층 면접 내용을 구체화 실시 하였다. 각 심층 면접시간은 30분 전후로 진행하였다. 3차까지 실시한 심층 면접 결과를 정리 하여 분석하였다. 10명 위원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몇가지 내용으로 유목화가 가능하였다. 첫째, 진로정보의 일원화 및 구체화 둘째, 수준별 진로교육 및 정보 셋째, 진로교육 및 정보의 소통 창구 마련 넷째, 진로교사의 역할 확대등으로 유목화 구체화 하였다. 유목화 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학교 중심의 학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진로교육이 정보제공 창구가 너무 제각각 이어서 혼란스럽고, 학교중심으로 창구가 단일화 되었으면 좋겠음. 또한 학부모가 진로 정보 접근에 용이하도록 학교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했으면 함.

첫째, 현행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국가평생교육원 중심, 공공기관·사설 민간인 중심,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보제공이 소홀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기관별로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논의에서 학교 진로교육 참여 학부모는 대략 20% 전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80%의 학부모가 학교의 진로교육 정보에 대해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부족도 있겠지만, 사정상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는 학부모도 있으므로, 학부모에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학부모 진로교육에 대한 세분화 및 구체화이다.

“학부모의 학교 급별 수준 차, 지역에 따른 특별성이 있는데, 진로교육이 너무 통일성과 표준성만 있어, 학부모 도움에 한계가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현행 진로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별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색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토로하였다. 이에 학부모 진로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세분화하고, 학교 위치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부가 제시한 진로교육

교육과정도 있겠지만, 현실이 반영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제안하였다.

3. 학부모 진로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이다.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는 교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음. 따라서 수준별 진로교육정보 제공, 가령 기본-심화 등으로 나누어서 구체화하였으면 좋겠음”.

학부모 진로교육을 단순 전달 방식의 지식제공 교육이 아닌, 심화별 지식을 탐색하고 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를 논의하였다. 여기서 위원들은 청소년의 해년별 특성, 진로, 직업 정보, 학부모의 진로 지도 등 단순 과정에서 점차 심화과정으로 확대해가고, 해당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링크하고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접근 방식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4. 학부모 진로에 대한 역량 성장을 위한 ‘진로정보 소통의 장’ 마련이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일회성 진로교육으로 역량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당근마켓’이나 ‘지역카페’처럼 학부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연구 참여자들은 학부모가 자녀 진로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 급별, 학년별, 관심별의 ‘학부모 진로정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당근마켓이나 지역 카페 맘처럼 학부모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진로에 대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서로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학부모의 진로에 대한 역량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5. 진로 전문성에 따른 진로교사의 역할 확대이다.

“법적으로 전문적인 진로를 담당하는 진로교사가 학교에 존재하는데, 진로교사의 역할이 미진함, 이에 따른 진로교사의 역할 및 예산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음”.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 자녀에 대한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 정보, 진로 문제에 대한 상담은 담임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보다 나은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진로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사에 대한 역할과 상담에 대한 기회가 확대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P지역 학부모 대상 학교 진로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진로교육의 현황과 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이다. 경기도 P지역 학교의 학부모대상 진로교육에 대한 보다 나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 학부모 진로 교육 현황은 국가평생교육원, 공공기관-사설기관,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의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 참여율은 20% 전후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효과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수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의 진로교육 성과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의 학부모에 대한 성과이고, 미 참여한 학부모가 다수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여, 다수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부모가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진로교육의 개선방안은 학부모의 진로에 대한 수준이 높으므로, 과정별 진로교육과 학교 급별 진로교육, 지역 특색별 진로교육의 차별화된 진로교육을 요구하였다. 교육부에 제시된 진로교육과정은 일회성, 단순성, 반복성으로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와 자녀 진로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 진로에 특화된 진로교사가 재직 중인데 학부모는 진로 상담을 담임교사와 상담하므로 이에 대한 괴리를 토로하였다. 일반적인 상담은 담임교사와 하고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진로교사와 상담하여 진로교사의 전문성 및 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열정은 높으나, 환경 및 상황으로 인하여, 참여율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P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모든 지역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의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델파이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기에 한계가 있다. 학부모 위원이라는 특수성으로 균질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모든 학부모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수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군의 학부모 대상으로 확대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위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생활환경, 사회적 요인, 개인적요소 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수한 변인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과부(2013). 「2012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 발표.
- 김소라·문승태(201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30(4), 27-48.
- 김수리·이재창(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희수(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류은수(202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8(4), 55-71.
- 박나실(2017). 일반고 진로교육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교육목표와 실행 주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5(4), 151-176.
- 박창연(2020).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연구수탁과제.
- 서유정·이지은·김수진(2013). 진로교육성과와 학교교육성과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미경·유금란(2013). 부모의 진로 및 자율성 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9), 73-95.
- 우동욱·김응자(2020).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1), 21-32.
- 이영선(2020). 고등학교 진로교육 정책 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논문.
- 이지연(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학 연구*, 20(6), 219-241.
- 이웅택·최재혁(2017). 고등학생의 부모와의관계 및 부모와의 진로 관련대화과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1), 47-66.
- 정은진(2018).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1. 진로교육 현황조사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현진(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및진로활동 경험의 영향. *진로교육연구*, 32(3), 43-64.
- 최봉순(2011).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진로지도 행동 척도 개발.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상근·김형주·진선미(2011).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성우(2016). 부모학: 성인학습적 관점에서의 탐구. *평생교육·HRD연구*, 12(1), 143-166.
- 최수미·강유림(2013). 부모지각 진로지지가 자녀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291-2306.
- 한민아(2021). 구성주의이론의 부모코칭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18(1), 5-23.
- 한상근(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상근·진미석·이영대·임언·이지연·이양구·정윤경(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Dalkey, N. C. (1981). Information Systems in Management Science—A Case Study of a Decision Analysis: Hamlet's Soliloquy. *Interfaces*, 11(5), 45-49.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85-419.
- Kotrlik, J. W., & Harrison, B. C. (1989). Career decision patterns of high school seniors in Louisian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4(2), 47-65.
- Murry Jr, J. W., & Hammons, J. O . (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436.
- Norris, W., Zeran, F. R., & Hatch, R. N. (1960). The Information Service in Guidance Occupational/Educational. Social. Rand McNally and Company.
- Otto, L. B. (2000). Youth Perspectives on Parental Career Influ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2). 111-118.

■ [웹사이트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nile.or.kr.
- 직업능력연구원. www.krivet.re.kr.
- 한국고용정보원. www.work.go.kr.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cue.or.kr.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https://kcce.or.kr>.

Abstract

The Implications of School Career Education for Parents

– School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of Public High schools in P area of Gyeonggi-do –

Kim, Yong Ki*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career education for parents in P area of Gyeonggi-do and to provide the results for designing better career education. There was a total of three in-depth interviews per 10 parent committee members of 10 public high schools located in P area of Gyeonggi-d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career education is offered mostly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The ratio of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 career education is around 20%, but the efficiency and satisfaction level are high. Second, there should be both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to expand parents' participa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to parents via the school website. Third, career education should be offered consistently and diversely by education levels, school levels, and regional features rather than a one-time event, along with the expansion of career teachers' roles.

Key Words : career education law, career education for parents, career education teacher

* Kyung ki-do, Pyeongtaek-City, Creative Education Center Director